

표백과 염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Colored Cotton

이러한 에콜로지 소재로써 Colored Cotton이 주목되고 있다. Colored cotton은 유색면 결국, 면화 그 자체에 색이 들어있어 그러한 자연의 색상을 그대로 살려 만든 소재인 것이다. 색맞춤이 자연으로써 쉽고 아름다운 이러한 면은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업랜드 코튼을 품종 개량한 것이다. 이것도 organic cotton을 만든 사리 폭스 여사에 의한 것이다.

Colored cotton은 보통의 면에 비하여 품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나 굳이 말하자면 통상의 면은 정련, 표백, 염색의 공정을 거쳐 면포가 염색됨에 대하여 colored cotton은 표백, 염색공정이 생략되는 것으로써 섬유가 약품에 의한 화학작용을 받는 일이 없어 강도 저하도 없다. 단 색상은 면화 그 자체의 브라운계, 그린계 등의 2~3색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색이 다른 면화를 조합하여 스트라이프, 상강조, 3색을 사용하는 등 무늬의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colored cotton은 표백, 염색의 공정은 생략할 수 있으나 원단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정련과 원단의 태를 정리하는 마무리 프로세스는 필요하다. 통상의 코튼은 가성소다 등의 알칼리 정련을 행하고 있으나 colored cotton에는 먹어도 지장이 없는 소화제를 사용하고 있다. 마무리 가공도 가식유연제가 사용된다. 그만큼 에콜로지라고 하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지구에 어울리는 에콜로지 지향에 힘입어 미국에서는 colored cotton을 좋아하여 수입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경부터 수입되어 일부에서는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침구, 타월, 인테리어, 캐주얼 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면사나 면직물의 원료인 면화 430만톤~450만톤을 생산하고 있어 미국을 웃돌고 있으며 품질도 신강성(新疆省)의 면화는 백도도 좋고 섬유장도 긴 양질의 면화가 연간 150만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colored cotton의 연구로 이미 연간 1.5만톤을 생산하고 있다.